

대부도 마을발전 계획,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총회 ‘대성황’



대부동 주민자치회가 22일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개최한 '2025년 제4회 대부동 주민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대부동 주민들이 주민총회 결과 발표 후 마무리로 각자 손팻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22일 대부동복지체육센터에서 4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

대부동 주민자치회(회장 김태성)가 22일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개최한 '2025년 제4회 대부동 주민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총회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

해 박태순 시의회 의장, 박해철 국회의원, 김철진 도의원, 선현후·이진분 시의원, 유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부동 주민들의 재능이 돋보인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이어졌으며 ▲2025년 자치계획 추진 성과보고 ▲2026년 주민제안사업 발표 ▲제안사업 논의 및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를 마치고 개회식이 마련되기 전 잠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대한市の 설명이 있었고,市는 "도시를 가로막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도시혁신프로젝트가 바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다"면서 "이를 통해 안산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도시 구조로 재창조하여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대부동의 정체성을 살린 포토존, 주민 참여형 투표존, 개회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가 마련돼 보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운영됐다.

주민총회에 상정된 자치사업은 총

6건으로 주민투표 결과 우선순위는 ▲마을 안길 정비사업 ▲우리동네 빨래방 ▲우리동네 물놀이터 ▲아름다운 대부동 우리동네 벽화 그리기 ▲한마음 문화예술제 ▲우리동네 탐험대 시즌3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동 주도형 사업은 3건으로 ▲LED 전광판 설치 ▲시화방조제 임구조형물 설치 ▲행정복지센터 안내시설물 설치 순으로 결정됐으며, 동 참여형 사업도 ▲대남로 보도구간 펜스 설치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황토길 설치 ▲농기계 작업 대행단 운영 ▲시화방조제 가로등 지역특산물 조형물 설치 ▲스타벅스·대부도 시그니처 메뉴 개발 순으로 주민들의 투표를 받았다.

한편 이날 주민총회는 대부동 주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가 축사를 한다면 시장에게 아부하는 발언을 길게 해 박태순 시의회 의장과 박해철 국회의원 등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4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민 삶 나누는 소통의 장 마련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24일 상록구 사동에서 개소식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조성

안산시는 24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상록구 사동 1557번지)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다양한 공동체 단체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공간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마을 단위에서 교육,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생활 속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됐다.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와 경과보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마을 합창단'의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과 공간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단체, 청소년 등 40여 개 공동체가 센터 전 층에서 전

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날 센터 1층에서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라운카페'에서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즐겁고 기쁜'이라는 순우리말 '라운'의 뜻을 담은 이 카페는 바리스타 직무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운영하게 된다.

2층은 공동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전시가 진행됐다. '서울예술대학교 코스모스팀의 시민 참여

형 전시와 '글로벌청소년센터'의 한국어 교실 전시, '문화세상고리'의 세계 의상과 전통놀이 체험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일상을 전달했다. '안산마을정원네트워크'는 씨앗 나눔과 식물 심기 체험을 진행하며 생태공동체의 의미를 전했다.

3층은 올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형 부스와 전시로 채워졌다. 체험 공간에서는 ▲천연비누 만들기 ▲가족 카드지갑 제작 ▲파우치 프린팅 등 소규모 공방체험이, 전

시 공간에서는 각 공동체의 공모사업 활동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4층에서는 안산시주민자치회와 공동체 단체가 전시, 체험, 나눔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민자치회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 ▲도자기 페인팅 ▲매듭 팔찌 만들기 ▲필사 체험 등을 구성했고, 타로 상담과 건강 문진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GTX-C 시대 대비 '상록수역세권 개발'시동

안산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허남석 부시장,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사의 과업수행계획 발표로 시작,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윤성용 기자

다음주 신문은
하계휴가로 휴간입니다.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장 협의회 개최... 산·학·연·관 협력



이민근 시장(사진 가운데)을 포함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장 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2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개최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23일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개최 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고잔동 일원에 9개 기관(▲(재)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ERICA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

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전기 연구원(KERI) ▲LG이노텍 안산R&D 캠퍼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 구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중소 벤처기업연수원) 등 산·학·연·관으 로 구성된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다. 이번 회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주요 활동을 공유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안산시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서 향후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한 결 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가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되면 로봇·인공지능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 이 재편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

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안산 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결정 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도약의 중심에 있 는 ASV 내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야만 지역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앞당길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적극 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공유자전거·PM 관리 위해 민·관 합동 협의회 본격

8개 업체 1만 200여 대 공유자전거 등 운영 중

안산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 단을 제공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유형 이동수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선 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에는 8개 업체가 1만 200여 대의 공유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수단은 친환경 경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의 안전 수칙을 무시한 주행 및 무분별한 주차로 시 민 불편을 초래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민간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보행 자 안전 및 이동 편의 확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 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이용자 에 대한 대여업체의 인센티브 지원제 도 확장 검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 및 협의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공유형 퍼스 널 모빌리티(PM) 및 자전거 이용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해 시민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의 보행권을 보 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민간업체와 긴 밀히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이민근 시장(앞줄 가운데)이 공유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민근 시장, 소비쿠폰 집행 앞두고 현장 준비 상황 점검

시장,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 "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이민근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 해 일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신 청 과정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안산시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 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을 시작함에 따라, 모든 행정복지 센터에 현장 접수처 설치를 완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이민근 시 장은 상록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해 오프라인 접수 창구 준 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현 장에서 만난 직원들을 격려하며 "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신속하 게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도 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 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 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액은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30 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 한 시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 급된다.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1일부터 첫 주 동안은 출 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 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토·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 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 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카드사 어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안산사랑 상품권(다온카드)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채널과 동 행정복지센 터 현장 창구, 은행 영업점 현장 창 구 등에서 가능하다. 이민근 시장은 "현장의 준비 사 항을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께 불 편이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 며 "첫 시작부터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 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이민근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일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신청 과정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선화 기자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우선 저소득층 대상 예정 향후 전체 어린이로 확대 내년 1월경 이뤄질 예정

안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 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어린이·청 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 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자로 공포된 이번 조 례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 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 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 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지원 범위(예산 범위 내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체제 구축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 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탄소 중립 실천과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 어 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향후 제도적 기반 과 예산 여건을 마련해 전체 어 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 카드 정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 등을 거 쳐 내년 1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 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市, 아마존 마케팅 특강 종료... 시민 글로벌 셀러 도전 지원



2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파워셀러 양성을 위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안산시청에서 시민 파워 셀러 양성을 위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3 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계 최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Amazon)'을 활용 해 해외 판로 개척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온라인 판매자를 대 상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6월 24일 기초 과정과 7월

두 차례 교육에 180여 명 시민이 찾아 높은 관심

22일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두 차 례 교육에는 180여 명의 시민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초 과정에서는 ▲글로벌 이커머 스 시장 동향 ▲아마존 플랫폼 구조 이해 ▲계정 개설, 마진 계산, 인증·라벨링 등 입점 실무 전반에 대한 교 육이 이뤄졌으며, 심화 과정에서는 ▲AI를 활용한 아마존 상품 등록 ▲베스트셀러 상품 분석 ▲실전 마케팅 전략 등 전문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 수강생은 "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아마존 입점부터 운영까

지 실무적인 부분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안정적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파워셀러 교육을 비롯해 청년 창업스쿨, 맞춤형 온라 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e-비즈니 스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창업 생태 계와 디지털 상거래 기반 강화,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기업 육성 에 주력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박해철 국회의원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에서 다문화가족대표 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회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다문화 가족 대표, 지역 활동가, 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해철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안산시병) 주최로 열렸다. 박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먼저 참관했다. 이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고령자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원곡동 다문화특구와 연계한 체류관광사업 활성화,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전략적 브랜딩 추진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다문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박해철 의원은 “안산은 ‘다문화’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회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다문화 가족 대표, 지역 활동가, 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창 기자

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시다. 이제는 상호문화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산·행정 제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황은화 안산시 의원은 “다문화 구성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국회박물관을 관람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입법의 기본에 충실한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사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

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수 및 처리율,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결특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핵심 책무에 대해 총 12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위 25% 이내 의원에게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의정활동 종합점수 88.65점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네 번째

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성실한 국회 출석과 충실한 법안 심사, 책임감 있는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고자 한 박해철 의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계 출신으로서 산재예방, 취약노동자 보호, 간접고용·이주노동 등 노동 전반에 걸쳐 입법을 추진해왔고, 자원순환과 미세먼지 등 지속가능한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또한 놓치지 않았다”며, “소중한 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를 뽑아주신 안산 시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987년부터 35년 이상 의정활동을 평가해온 시민단체로, 공정한 분석과 발표를 통해 높은 공신력을 자랑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현 의원 대표발의 「단통법」 폐지 법안 22일부터 시행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과 유통시장 질서 확립 위한 제도 개선 확립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11년간 과도한 지원금 규제로 인한 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차단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위축시켜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회복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중소 판매망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통법 폐지 및 자금제+알뜰폰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저가 자금제폰 확대, 자금제+알뜰폰 연계 혜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금 정보 제공이 투명성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이

용자 권익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 등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관련 부처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통신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의원 “효과 있는 예산 집행, 민간단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돼야”

경기도의회와 법정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현황 공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

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부패방지·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해 강연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패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안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부패 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교육 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광수 강사는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임했다.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태창 기자

김태희 경기도의원, 반월동 경기모바일고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 5억 1,677만원 확보 ‘성과’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사진)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반월동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고는 지난 1967년 개교하여 현재 안산 내 특성화고등학교 중 유

일한 공립학교로 400명의 학생과 75명의 교직원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 지역 초·중·고 학교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안산 반월동 경기모바일고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자연과 사람, 미래를 잇는 2025 제4회 대부동 주민총회 마무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대부동 주민총회'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주민총회장에 참석한 대부도 주민들의 모습이다. 대부도 발전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1면 대부동 주민총회〉 관련기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대부동 주민총회'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에게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경품추첨을 위해 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채워주고 행사장으로 입장을 유도했다. 행사장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풍물공연과 에어로빅이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졌다. 이어서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홍보 프로젝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가 PPT를 통해 전해졌다.

중앙역 인근은 스마트 콤팩트 시티존, 고잔역 부근은 센트럴 시티존, 초지역 부근은 글로벌 다문화존으로 개발하게 된다는 야심찬 계획을 전했다. 이민근 시장으로부터 주민 2명에게 시장 표창도 주어졌다. 내빈소개와 축사가 이어졌다. 대부동 주민자치회 김태성 회장은 내빈을 소개하면서 어르신들 먼저 챙긴다는 의미로 대부동 노인지회 이강세 회장을 비롯해 경로당 21곳의 노인회장을 일일이 소개했다. 다음으로 이민근 시장, 박태순 시의회 의장, 박해철 국회의원 등을 소개했다. 이민근 시장은 후반부에 안산시정 설명을 하면서 축사를 하기로 하고 먼저 박태순 시의회 의장부터 축사를

시작했다. 박 의장은 "대부동 주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왔다. 대부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대부동은 도로와 학교문제가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도 대부도는 인구가 늘고 있지는 않지만 줄고 있지도 않다. 다른 동은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변화의 시작이다. 오늘 주민총회처럼 참여할 때 대부도가 변한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선현우 시의원은 "여기에 대부도를 사랑하는 분이 두 분 있다. 대부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박해철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함께 동그라미를 그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시장과 박 의원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화답했다. 이진분 시의원은 "저는 새마을부녀회장을 오래했다. 그래서 대부도에도 포도씨우기 하기 위해 많이 왔다. 대

켰다. 대부도 펜션 불법문제도 양성화되도록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민근 시장이 2024년 안산시 예산운영 과정과 시비, 도비, 국비에 대한 설명을 더했고 2025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대부도에 추진중인 (가칭)경기 안산국제학교는 반드시 교명이 '경기 안산국제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안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한다. 현재나 근시한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7월에 부임해 대부도 곳곳을 살피고 있다. 대부도를 위해 결정된 사항들을 잘 살핀 후 시에 잘 보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가교역할을 잘 하겠다. 분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부해양본부에 문의해 달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은 "대부개발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단속과 인허가부서여서 그렇다. 하지만 주민이 만족하는 행

오늘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동 주민자치회 황진 부회장으로부터 2025년 주민제안 사업보고, 2026년 주민제안사업 설명이 있었고 토론 및 투표, 투표 집계 및 중간공원이 이어졌다. 라인댄스와 섹소폰 연주가 주민총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투표결과와 발표 및 기념촬영으로 행사일정은 마무리 됐고 주민들의 큰 관심속에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쌀, 양산, 김, 선풍기, 액젓, 상품권, 자전거 등과 함께 최고 경품으로 대형TV까지 마치고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날 대부동 주민총회에서 낮 뜨거운 일도 일부 있어 아쉬움을 주었다.

한 인사가 축사를 하면서 이민근 시장, 박태순 의장, 박해철 국회의원이 주민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박태순 의장과 박해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 시장에 대해서만 대부도를 위해 열심히 했다는 네 가지 치적을 열정적으로 제시해 빈축을 샀다. 일부 주민은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축사여서 시장을 위한다는 것이 역으로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역효과만 낳았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주민총회 인산인해 이루며 지역발전 기원

박해철 국회의원은 "대부도를 오고 간 지 1년이 되었지만 이처럼 많이 모인 거는 처음이다. 대부도는 민원이 많은 곳이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부도 발전을 위해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진 도의원은 "오늘 참으로 많은 대부도 주민들이 함께 모였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부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 5만자족도시 되도록 노력하자. 대부도 주민도 안산선지하화 되도록 노력하자. 123번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들어왔다. 대부도 주민 123세가 되도록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세 노인지회장은 "우리는 대부도문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오늘 투표로 결정할 텐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민근 시장이 대부도 일을 많이 했다.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하고 그것도 진심으로 다 한다. 똑스6대를 대부도에 들어왔다. 남동 새티삼거리에서 도서관까지 포장도 했다. 123번 버스도 수소버스로 전환시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이 안산 25개 동중에 24번째 총회다. 마지막은 와동에서 하게 된다. 우리는 대부동이 인구 5만이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미래지향으로 성장이 가능한 대부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지인 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친 이 시장은 대부동 주민총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 앞으로 부른 뒤 한 마디씩 하도록 기회를 줬다. 이동규 단원구청장은 "대부동은 그동안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앞으로 대부도를 위해

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1,300여명의 어민들 상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 잘 받들어서 잘 하겠다"고 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따뜻한 행정, 소통하는 행정의 대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 여러분이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과 함께 김태성 대부동 주민자치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오늘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대부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주민총회가 열리게 됐다.

육도 해안도로 보수공사 착수...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8억 확보



하늘에서 드론으로 바라 본 육도의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선정 특수상황지역개발(섬)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안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섬) 신규사업'으로 육도 해안도로 보수공사가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육도는 소규모 도서 지역으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

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자, 시는 지난 3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안도로 보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 자료에 현장 의견 등 구체적 내용을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과 주민 수요를 인정받았다. 시는 국비 8억 원에 시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 해안가 침식으로 파손된 육도 해안도로(풍도동 377-8번지 일원) 230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 단신

122번 시내버스 7월 21일부터 경로변경 운행

변경전에는 대부동행정복지센터-북동삼거리-방아머리-오이도역-안산역-원시역이 주요 노선이였다. 오이도역을 지나는 코스로 운행한 것이다. 그러나 변경후는 대부해양본부-방아머리-거북섬-반달섬-원시역-안산시청-초지역을 경유하는 코스로 반달섬 방향으로 운행하는 게 차이점이다.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션&카페시모’에서 ‘안산의 밤’ 공연이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70분간 공연 낭만의 판타지
모든 공연 무료, 누구나 가능

“‘안산의 밤’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 관절 누구의 숨을 쉬고 있는가? 타인 을 대리하고, 세상의 사람을 대리하 다가 사라지는 나의 숨소리, ‘안산의 밤’, 깊은 생의 숨을 마주해본다”

〈본지 7월 21일자 1면〉

‘안산의 밤’은 매주 토요일 오후 7 시부터 70분간 대부북동 구봉도(구 봉길 102-22)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 셴&카페시모’(대표 이은숙)에서 우 리들의 이야기를 그린 ‘안산의 밤’을 담아 공연을 펼친다.

‘안산의 밤’은 대리운전이라는 익숙 한 공간 속, 네 명의 배우가 그려내는 낯선 감정의 파장, 대리운전기사와 승객, 우연한 만남 속에 펼쳐지는 다 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씨 아 트(SEA ART) ‘안산의 밤’은 도시의 밤 속에서, 쉽게 말하지 못한 삶의 무 계를 배우의 ‘숨+춤+시’로 풀어낸 공 연이다.

우리나라 마지막 폼바 전수자 문정 수 선생이 연출한 작품으로 직접 공 연에 고수로 참여하고 하회탈을 쓴 4 인조 그룹이 검은 정장차림으로 공연 을 펼친다.

19일 현재 3회 공연을 마쳤고 ‘안산 의 밤’ 공연은 오는 8월말까지 계속된 다.

다만 공연은 8월말까지 예정되어 있 지만 관객의 호응이 높으면 연말까지 도 계속할 수 있다. 공연은 모두 재능



객석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이 ‘안산의 밤’ 배우들의 몸짓에 푹 빠져 있다.

김태창 기자

기부로 이루어지며 입장료는 없다. 시 민 누구나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형식은 춤과 대화(독백) 형식 이다. 때로는 정적이고 때로는 동적 으로 관객을 빨아들인다.

주제는 ‘안산의 밤’, 대부해솔길 1코 스에 있는 북망산 자락 아래에서 공 연을 펼치는 만큼 북망산도 주제에 들어간다.

대화는 진솔하게 진행되고 모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게 관객들의 공연 후 소감이다.

그래서 일까. 공연 내내 동질감을 느끼며 공연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대리운전기사가 만나는 정육점 자 영업자, 동대문 원단장사, 증권회사 차장, 대학병원 의사, 제약회사 부장, 부동산 개발업자, 음악 예술가, 건설 회사 소장, 대기업 임원, 장례식 후회

하는 남자...동료, 친구, 가족, 타인들 이 얹히고 설키며 학혀 뱉어내는 인 생의 숨소리들을 들어보라

‘안산의 밤’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인생의 밤 속, 그 찰나 속에서 우리가 숨긴 감정, 꼭 눌러온 삶의 균열을 조 응히 들여다 본다. 우리 서로 말하지 못한 삶 속의 무게를 세계 최초 ‘프뉴 마티콘 카리스마-예술가’의 ‘숨’과 ‘춤’과 ‘시’로 풀어낸 공연이다.

야간 공연인만큼 공연장 주변에 설 치된 기둥에 조명이 바뀌면서 화려함 도 더한다. 바로 바다앞에 무대가 마 련되어 있어 바다풍광 또한 좋고 시 원한 바닷바람이 무더운 여름더위를 한 순간에 날려버린다.

비가 와도 공연은 계속된다. 평소 공연은 야외 카페마당에서 진행되지 만 1층 실내에서도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션&카페시 모’는 1층이 카페인 ‘카페시모’이고 2 층은 ‘씨아트(SEA ART) 바다펜션’ 이 며 야외에 넓은 ‘카페마당’이 있는 곳 이다.

공연 주요 내용은 대리기사가 운전 하면서 차 주인과 차 안에서 자연스 럽게 나누는 대화형식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따라서 중간 중간 에 고수의 장단에 맞춰 판소리가 웅 장한 바닷소리와 함께 펼쳐진다.

공연 후에는 출연진과 1시간 정도 티타임을 갖는다. 관객과 대화를 나누 는 자리로 애플곡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부도 씨아 트 바다펜션&카페시모’(010-7351-80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무더위 속 어르신 도운 성호중 학생 2명 표창장 수여



이민근 시장(가운데)이 선행을 실천한 성호중학교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성호중학교 양시온(2학년)
유호현(2학년) 학생에게

안산시는 18일 무더위 속 어르신 을 도와 선한 영향력을 선사한 성 호중학교 양시온(2학년), 유호현(2 학년) 학생을 안산시청으로 초대 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 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 6월 19일 무 더위가 지속되던 상록구 일동 일 대에서 무거운 수레를 홀로 끌고 가 던 어르신을 발견하고 자발적으 로 다가가 함께 수레를 끌고 가는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어난 이 선 행은 인근 주민이 목격하고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 되며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뒤 선행을 펼쳐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 다.

이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이웃을 향한 학생들의 따 뜻한 마음이 많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다”라며 “소소하 고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 울림은 매우 컸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 음”이라고 말했다.

양시온, 유호현 학생은 “누구라 도 그런 상황이라면 도와드렸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 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최종 선정작가 11인 선정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년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에서 최종 11인의 작가가 선정됐다.

김태창 기자

선정작가 공모 접수인원
439명 중 작가 최종 선정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 사 김태훈)이 주관한 2025년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에서 최종 11인의 작가가 선정됐다.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은 단 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창조적으로 계 승·발전시키고 한국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육 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단원 미술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단원미술제는 2015 년 작품공모에서 선정작가 공모로 전 환한 이후 최대 인원인 총 439명의 작가가 지원했다.

단원미술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 3 차 전시심사 순으로 총 3번의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3일 열린 1차 심사예 서 응모 작가의 서류 및 포트폴리오 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총 22명의 작가를 선정하였고, 지난 17일 열린 2차 심사에서는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11인이 작가가 선정되었다.

제26회 단원미술제 심사위원장은 “ 다양한 주제와 재료, 각자의 창의적 인 아이디어로 표현된 수준 있는 훌 륭한 작가들이 많았다.”라며, “독자적 이고 창의적인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자 소재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표현해 보려 집요하 게 파고드는 집념과 시도는 매우 바

람직했다.”고 평했다.

이번 2차 심사에서 선정된 11명의 작가는 김민호, 김준기, 김형욱, 김형 진, 선민정, 염지희, 이윤빈, 이윤정, 전효경, 정현정, 현덕식 작가이다. 11 명의 작가 중에는 지역작가 육성을 목표로 안산에 거주하는 작가 1명(이 윤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김홍도미술관에서의 전시 기회와 함 께 전시지원금 각 200만원이 지급된 다. 이후 전시기간 중 3차 심사를 통 해 결정되는 단원미술제대상 수상자 1 인에게는 상금 3,000만원(매입상)이 수여된다.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전시 는 오는 9월 30일부터 김홍도미술관 1관에서 진행된다.

한편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 원프로그램으로 2024 제25회 단원미 술제 대상 수상자인 성필하 작가의 개인전이 같은 기간 김홍도미술관 2 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김홍도미술관 031-481-0503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도서관에 북캉스 오세요”

‘2025년 안산시 올해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공모전’ 진행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시민들이 폭염에서 벗어나 다 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안산 시 올해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공모전’ 접수가 진행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 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안산시 올해의 책(▲내일의 엔딩(김유나, 일 반부·중고등부 대상) ▲감당 못 할 전 학생(심순, 어린이 부분)을 읽고 독후 감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부와 중·고 등부, 초등부 각각 6명(최우수 1명, 우 수 2명, 장려 3명)씩 수상자를 선정해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 는 안산시도서관 누리집 ‘독서감상작 전국공모전’에서 가능하다. 정희재 기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발레<지젤>, 7월 24일 티켓오픈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작
백색발레의 진수 보인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 훈)은 7월 24일 오전 11시에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지젤 >의 티켓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 다. 이번 공연은 2025 공연예술지 역유통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예술 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안산문 화재단과 발레 에스티피 협동조합 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 원한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 <지젤>은 사랑과 용서, 그리 고 환상의 경계를 아름답게 그려 내는 무대가 특징으로 발레 팬이 라면 반드시 봐야 할 명작 중 하나 다.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 시, 15일(토) 오후 3시, 안산문화예 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총 2회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백색발레(Ballet Blanc)’의 진수를 보여주는 환상적 인 연출로, 음침한 달빛 아래 슬픔 을 품은 윌리(Willis)들의 군무가 무 대 위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펼친 다. 흰 튀튀를 입은 군무가 빛내

는 안무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물 입을 선사하며, 낭만주의 발레의 정수를 감상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음침한 달빛 아래 숲 속에서 너울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채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슬 픔을 가슴에 담은 윌리들의 몸짓 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듯 공중에 떠있는 착각을 일으키며, 발레블랑의 몽환적 매력을 한껏 선사한다.

〈발레에스티피 협동조합〉은 「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 어터」, 「SEO(사)발레단」, 「와 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 「정형일Ballet Creative」, 「댄스 시어터 샤하르」, 「유별발레컴퍼 니」 등 8개의 민간발레단이 함께 모인 단체로, 2012년부터 발레의 대중화와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연, 교육, 협업 활동을 꾸준 히 펼쳐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9월 30일까지 예매 시 조기예매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 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반찬 나눔



단원구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에서 관내 취약계층에 '초복 맞이 삼계탕과 곁절이 나눔 행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반찬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은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지막 사업 활동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위원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이 건강

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대상자의 안부와 격려도 확인했다.

남소현 지사협 위원장은 "무더위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원기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웃과 함께 정과 나눔이 있어 행복한 백운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도 "더운 날씨에도 음식을 준비해 주신 백운동 지사협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안산동 지사협, 찬란한 찬 나누기 사업 추진



상록구 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안산동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찬란한 찬(饌)나누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찬란한 찬 나누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을 위로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지사협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돼지불고기, 두부조림, 마늘종무침 등 반찬과 바나나 등 간식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 20가구에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여

췌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락 민간위원장은 "지사협 위원들의 작은 섬김과 관심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늘 살피고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하연 안산동장은 "꾸준히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돌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국제표준안전재단 안산지회, 와동에 나눔행사



단원구 와동 행정복지센터는 국제표준안전재단 안산지회로부터 양념고기(소, 돼지) 20kg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제표준안전재단 안산지회는 관내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위해 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표준안전재단 안산지회 회원들이 사랑을 담아 준비한 양념고기 20kg을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태연 국제표준안전재단 안산지회 본부장은 "저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애자 와동장은 "와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찾아와주신 국제표준안전재단 안산지회 본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이동, 효(孝)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관내 어르신 250여 명을 모시고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권혁봉) 및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임)가 주최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께서는 "올해 유독 일찍부터 햇살이 뜨거운 날이 지속되어서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정성이 가득 담긴 삼계탕을 먹어서 기운이 난다"며 더운 날 아침부터 고생한 이동 새마을회를 비롯한 모든 분

께 고마움을 표했다.

권혁봉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올해는 유독 날이 더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인데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드시고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삼계탕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권혁봉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동 어르신들께서 맛있는 삼계탕 드시고 이번 여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초지동,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 체결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관내 15개 경로당과 ㈜베이스(대표 이강현), 플랫폼(대표 박종균) 간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은 기업·단체와 경로당 간 결연을 체결해 상호 교류 및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후원업체인 ㈜베이스는 올해 3월 단원구 내 경로당 151개소에 돈육 1톤을 후원한 바 있으며, 플랫폼은 지난 4월 초지동 경로당 회장단 워크숍

에 물품을 후원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강수 초지동 경로당협의회장은 "젊은이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까지 갖추다니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후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황병호 초지동장은 "초지동 어르신들에 대한 ㈜베이스와 플랫폼 두 후원업체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은 이러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중앙동분회, 삼계탕 나눔행사



단원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3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지회 중앙동분회(회장 김순환)에서 중복을 맞이해 관내 힐스테이트중앙 경로당 어르신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중앙동 분회원 1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전했다.


김순환 중앙동 분회장은 "무더운 여름, 정성이 담긴 한 끼가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동이 안산의 중심동답게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미라 중앙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앞장서 주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지회 중앙동 분회에 감사드리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동 주민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안산도시공사, 직원 대상 ‘ESG 탄소중립 빙고 캠페인’ 실시

전직원 참여형 캠페인
일상생활 탄소중립 위한
실천문화 확산 계기마련

안산도시공사는 ESG 경영 확산
과 전 직원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ESG 탄소중립 빙고 캠페인’을 실시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빙고 게임 형식을 활
용해 임직원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탄
소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해 마련됐다.

4×4 빙고판에는 ▲텀블러 사용 ▲
플라스틱·비닐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 ▲양치컵 사용 ▲의류 재활용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총 16개의 친환경 활동이 담겨있으
며, 참여 임직원은 직접 실천하며 빙

고 줄을 완성하게 된다.
참여한 임직원에게 실천 정도에 따
라 봉사시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철연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우리 공사의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실천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
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2022년 ‘ESG 경영체제’를 선
연한 뒤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

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이
어오고 있으며, 올 6월 한국평가데이
터가 실시한 ESG 기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축하, 홍보, 급매 광고 전문


생일, 결혼, 승진, 축하 광고.
상호, 제품, 행사, 영업 홍보.

급하다! 지금팔자! 부동산 급매물

대부도저널 광고국장
김선중 M: 010.3199.4992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토야프렌즈

조기열 M. 010.9436.9055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03번길12, 1동 401호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반달섬
분양.임대.매매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BEAUTIFUL OCEAN VIEW
히든펜션 HIDDEN PENSION
서해안 바다뷰 펜션 20여개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웅진군, 덕적·자월면 ‘1일 생활권 시대’ 개막

‘대부고속페리9호’ 본격화 오전출항 여객선 23일 취항

웅진군은 22일 덕적도에서 ‘대부고속페리9호’ 취항식을 개최하고, 23일부터 덕적·자월면과 인천을 연결하는 오전출항 여객선(덕적-이작-인천항로)운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하는 대부고속페리9호는 웅진군에서 덕적·자월면 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을 목표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의 첫 결실로, 2024년 3월 대부해운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신조선을 준공한 데 이어, 오는 23일 첫 취항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인천 방문 시 1박 체류가 불가능했던 덕적·자월면 주민들은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으로 인천에서 약 5시간의 체류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당일 일정 소화 가능해졌으며, 병원 진료, 관공서 업무, 생필품 구매 등 도시 기반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덕적면과 자월면 각 섬 간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간 소비도 활발해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고속페리9호는 총 톤수 524톤, 항속 15노트, 여객정원 450명, 차량



웅진군은 22일 덕적도에서 ‘대부고속페리9호’ 취항식을 개최하고, 23일부터 덕적·자월면과 인천을 연결하는 오전출항 여객선(덕적-이작-인천항로)운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수용 35대(중형승용차 기준) 규모의 차도선으로, 오전 7시에 덕적도를 출발해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자월도를 경유해 오전 9시 50분에 인천에 도착하며, 약 5시간 체류 후 오후 3시에 같은 항로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된다.

이날 취항식에는 문경복 웅진군수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원, 대부해운 대표, 주민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덕적면 큰물섬 색소폰 동호회의 축하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선사와 선원들에게

안전운항기원패와 꽃목걸이를 전달하며 취항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대이작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인천에 한 번 다녀오려면 이틀은 잡아야 해서 늘 큰맘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당일로 다녀올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제야 진짜 섬과 도시가 이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주민 입장에서 정말 실감나는 변화”라고 말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이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루를 통째로 포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오전출항 여객

선은 덕적·자월과 인천을 실질적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주민의 하루를 되찾아주는 변화이자,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웅진군은 섬과 육지를 가르는 불편의 경계를 하나씩 지워가며, 군민 누구나 시간과 거리에 제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더 가깝고, 더 편리한 해상교통’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북도면, 해수욕장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안전업무 협약 체결

웅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21일, 북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본격적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및 안전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북도파출소, 북도119지역대, 하늘바다파출소, 북도예비군대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참석기관들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해수욕장 안전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수영 북도면장은 “이번 간담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웅진군 북도면은 지난 21일, 북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본격적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및 안전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웅진군, 농촌지도사업 내실 있는 추진 위해 앞장

진군은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8월 8일까지 ‘2026년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2026년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총 4개 분야 30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재육성분야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 ▲식량작물 분야의 ‘벼 육묘 및 물관리 생력화 장비 공급사업’ ▲소득작목 분야의 ‘무인방제 과수 관리기술 시범사업’ ▲농업기계 분야의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윤성용 기자

직거래로 만나는 웅진자연 단호박... 면역력에 으뜸

웅진군, 단호박 직거래판매 23일 웅진군청 1층 로비에서

웅진군은 23일, 웅진군청 1층 로비에서 ‘단호박 직거래 판매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 판매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웅진자연 단호박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웅진자연 단호박’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아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맛이 밤과 유사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이 필요한 노인층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간식 또는 선물용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웅진군은 지난 2009년 북도면

0.3ha(3농가)의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우량종자, 덕시설 및 기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농업기술사업을 통해 단호박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왔다. 현재는 웅진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자리 잡아, 직거래는 물론 도시 소비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조상천 북도면 단호박 연구회장은 “이번 직거래 행사는 웅진군 단호박

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웅진 농산물 우수성을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용방건설산업(주)

- | | |
|-----------------|----------------|
| ■ 토목사업 |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 ■ 파일 항타 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김 의장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 만들 것”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임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라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

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라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되어야 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길 위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 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 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

하다”라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동연 “인명구조 최우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요청”

호우 피해 입은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및 통합지원본부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20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보니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

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포함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하여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수색·구조,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의 지원 활동을 하기로 했다. 김태창 기자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래기획

대표 이 병 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반려동물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독스앤플레이’ 개관… 150여 명 참석

반려견 교육 · 유치원 · 호텔 통합시설 오픈 기념, 전문가 토크쇼 및 반려문화 교류의 장 마련



개관식 이후 이어진 기념 토크쇼의 모습이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모여 반려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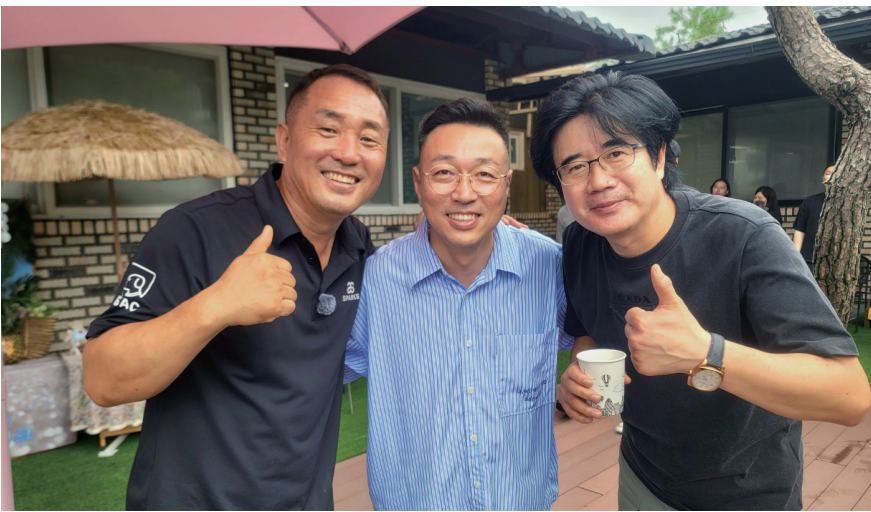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KCMC 문화원 이용종 대표, 개그맨 심재욱, 애니멀매거진 권오윤 대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날 행사에는 반려동물 제조사, 유통사, 호텔·미용 등 유관업계 관계자 및 보호자 등 약 50개 반려인 가족 팀, 총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성용 기자

7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반려견 복합문화공간 ‘독스앤플레이’가 공식 개관식을 열고 새로운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사회는 반려동물 전문 MC 고영두 대표가 맡았고 개관식은 펫사료

협회 김상덕 회장, KCMC문화원·독스앤플레이 이용종 대표, 배우 김경룡, 윤서현, 정흥채, 개그맨 심재욱, 모델 김효진 한국애견연맹 화성지부 이병익 지부장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어서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 ‘독스앤플

레이’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개관식 이후 이어진 기념 토크쇼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모여 반려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독스앤플레이 이삭교육센터 대표 훈련사 이용종 교수 (원조 개통, TV

동물농장 개과전선), 이찬중 소장 (SBS TV동물농장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김승이 훈련사 (SBS TV동물농장 실전 행동교정 전문가) 등이 토크쇼에 참여했다.

세 사람은 “문제행동의 원인과 개선 방법”을 주제로 ▲지나친 짖음 ▲산

책 문제 ▲사회화 부족 등 반려견의 문제행동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자와의 올바른 소통법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반려동물 제조사, 유통사, 호텔·미용 등 유관업계 관계자 및 보호자 등 약 50개 반려인 가족 팀, 총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반려견을 동반한 하객들이 행사를 자유롭게 오가며 호텔, 유치원, 교육시설 등 ‘독스앤플레이’의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보는 모습이 연출됐으며, 보호자 대상 현장 상담과 시설 체험도 함께 제공됐다.

이날 개관식은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진행 됐다. KCMC문화원 강민진 국장과 김지현 센터장이 앞으로 반려문화와 산업에서의 전문성과 융합하기 위한 기획으로 이번 개관식을 준비해 참여한 내빈들의 분위기를 이끌어 올렸다.

이번 개관식을 통해 이용종 대표는 “독스앤플레이(Dogs&Play)는 반려견 교육, 호텔, 유치원 기능을 통합한 전문 복합공간으로, 놀이와 학습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의 사회성 증진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함을 목표로 하고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노력 할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맞춤형 놀이·기초매너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텔: 프리미엄 1:1 케어, CCTV·IoT 시스템 기반 안심 서비스

△교육센터: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보호자 클래스 정기 운영 예정
“독스앤플레이는 단순한 위탁 시설이 아닌,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공존의 공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반려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성용 기자

도란 최현준 프로젝트이머, 유기견 보호 위해 5,000만원 기부

둥글개 봉사단 이용종 대표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 전달

프로게이머 도란(본명 최현준)이 데뷔 6주년과 생일을 맞아 유기동물 보호소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5,0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펼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19년 데뷔한 도란 선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인 LCK에서 4회 우승을 이뤄낸 정상급 탑 라이너로, 현재 T1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이번 기부는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둥글개 봉사단’ 이용종 대표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 전달됐다.

후원 행사는 21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이용종 대표 소유의 ‘독스 앤 플레이’에서 진행됐다.

도란 선수는 현금 기부와 함께 배변패드, 사료 등 보호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함께 전달해 유기견들

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슈퍼전트 관계자는 “도란 선수가 데뷔 6주년과 생일을 기념해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했다”며, “도란 선수가 올해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팬분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식을 끝까지 고심했다”고 전했다.

둥글개 봉사단 측은 “프로게이머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이처럼 큰 규모의 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작은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길 바라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용종 대표는 도란선수에게 감사함도 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라서 더 따뜻하며, 기부는 손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전해진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나눈 사랑은 유기동물에게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KCMC둥글개봉사단은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상으로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용품 사료와 간식은 물론, 영양제 등 필수 물품을 기부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유기동물들의 건강과 위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생명존중과 반려동물 복지향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둥글개봉사단은 취약계층과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해 꾸준하게 동물매개치유 봉사활동과 유기동물보호소 물품기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봉사와 실천은 이용종 대표와 함께 진행됐으며 이번 유기동물보호소 나눔 봉사 활동 역시 이 대표가 기획하고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프로게이머 도란(본명 최현준)이 데뷔 6주년과 생일을 맞아 유기동물보호소에 5,0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펼쳤다. 이번 기부는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둥글개 봉사단’ 이용종 대표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 전달됐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6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 포럼 개최 [상]



曁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15년 1월부터 2018년말까지 4년간 문헌 조사, 현장답사, 주민 면담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 04. 10. 14:00 안산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지원으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내빈과 음악인, 예술인,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부도,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안산시 박명훈 전 의원을 주축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곡가, 사학자, 영화 배우, 방송인 등이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좌장을 맡았다. 식전 행사는 박명훈 의원이 주관하고 내빈 소개가 있는 후, 진행은 김지원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어 좌장 이찬구 사무총장의 발제자 소개가 있었다.

발제 1.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의 증언 및 대부도와 다른 섬 비교 연구는 김선철 교장, 발제 2. '섬마을



2019년 4월 10일 당시 박영록(SBS 아인시대, 배우), 중앙 박성훈(고장난 벽시계, 작곡가), 허흥식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겨레알라리 국민운동본부 이찬구 사무국장, 안산시 이기용 문화복지국장, 김지원 아나운서

선생님' 배경지 대부도 환경 적합성은 신정웅 교장, 발제 3. 증언 채취를 통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도출은 이준희 지회장이 발표하였다.

토론은 좌장 이찬구 사무총장의 토론자 소개가 있는 후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로서의 지위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박성훈 작곡가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박성훈 작곡가는 1976년부터 많은 대중가요를 작곡하였는데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주현미의 첫정, 나훈아의 '고장 난 벽시계 등 수 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지 가수의 명곡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가 처음에는 전남 목포 남쪽 섬, 그 다음은 대이작도라고 말해왔다. 이번 포럼 자료를 보니 안산 대부도가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임을



2019년 4월 10일 당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로서 60년대 대부도 환경의 적합성에 대하여 발표하는 발제자 신정웅 교장 선생님

을 알게 되었다. 방송 출연 시 대부도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배경지라고 알리겠다. KBS 김재형 전 PD의 증언, 소재인 해당화, 철새와 전입한 총각 선생님, 19살 섬 색시, 구름도 쫓겨 가는 섬마을, 바닷가 섬 학교의 총각 선생님 등 소재와 일치하는 면, 이십여 리에 걸친 해당화 군락지, 주민, 졸업생, 전문가 등의 증언에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부도가 맞다. 대부도에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주인공인 총각 선생님과 섬 색시가 살고 계신다니 찾아보고 싶다.

대부도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바닷가라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섬마을 선생님'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인 섬마을 축제로 발전시켜야겠다. 마포나루까지 오간 대부도 소금 뭍배를 '마포나루 갯길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좋은 브랜드 하나가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므로 안산시에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 기념관,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 체험장 등의 조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섬마을 선생님' 노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두 번째는 SBS '아인시대', '장길산', KBS '불멸의 이순신' 등에서 열연한 국제영상위원회 대표 박영록 배우의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토론 내용이다.

>>> 다음호 계속

데스크 칼럼

대부도 지역 수도 해결방안은 있다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 주민 절반이 여전히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수도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부도 전체 5,500세대 중 3,000세대 이상이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과 법적 권리의 실현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대부도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수도 보급에서 배제돼 왔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끌어 먹거나 생수에 의존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 슬러지 처리장 등과 인접한 지역의 지하수는 오염 우려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수도 설치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다. 세대당 5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많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며, 여기에 사도(私人道路) 사용 승낙서 제출 등 까다로운 서류 요건은 사실상 수도 설치를 막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법 제218조와 제219조, 수도법 제2조는 모두 공공시설 설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

우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수도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 민원성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안산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줄이고, 사도 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지역권 설정'을 통해 행정이 중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기반시설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셋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도·전기·가스 등 기본 생활 인프라 설치에 한해 토지 소유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행정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매립지 관리 강화, 정기 수질 점검 및 대체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수도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대부도 주민이 더 이상 지하수 오염 걱정 없이 깨끗한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안산시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소극적 행정과 복잡한 절차를 넘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그것이야말로 대부도 주민을 위한 길이고 대부도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대부면이 아닌 대부동으로 살아가는 대부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 대부동 주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신협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